

(탈)식민적 남성학적 관점에서 『더블린 사람들』 읽기*

민 태 운

주지하다시피 프로이트(Freud)는 남아가 어머니와의 완전한 분리를 이룩함으로써 어엿한 남성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성은 이미 완성된 존재라기 보다는 되고 있는 ‘과정’의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성은, 키멜(Kimmel)의 주장대로, 평생에 걸쳐 어머니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안간힘을 쓴다(127). 이처럼 남성성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것”(constant insecurity)으로 경험된다고 할 수 있다(Flannigan-Saint-Aubin 245). 이러한 현상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등장인물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들에게 남성성은 모순이고 문제가 된다. 그들이 남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남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지배자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들은 제국의 식민지인으로서 “항상 이미” ‘여성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세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1-A00599).

기에 르낭(Ernest Renan)과 아놀드(Matthew Arnold)는 각각 아일랜드 사람들에 대해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인종”(essentially feminine race)이라느니(Renan 8) “여성적인 테”(something feminine)가 있다느니(Arnold 86) 하면서, ‘남성적인’(그리고 가부장적인) 앵글로 색슨족과 대조시켜 켈트족 —문맥에서는 아일랜드 민족을 가리킴— 을 여성적인 존재로 특징지었다. 더욱이, 아일랜드가 고대로부터 항상 ‘여성’으로 상징되어 왔고, ‘불쌍한 노파’(Poor Old Woman, 아일랜드 어로는 Shan Van Vocht)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일랜드의 민간설화에 나오는 여성은 자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는 것도 아일랜드 남성들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는 요소이다.¹⁾ 왜냐하면 이것은 남성적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서구의 가부장 사회의 관점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아일랜드 남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남성성, 다시 말해서 자신이 여성적이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 은 이처럼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아일랜드의 남성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여성적 요소들, 예컨대 동정심이라든지 부드러움 같은 것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대신에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성의 중요한 시니피앙”이라 간주되는 술과 폭력(Canaan 114), 그리고 여성의 비하 등을 통해 남성성을 과시해 보이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남성들에 의해서 남성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 남성학 분야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만큼 지금까지 (탈)식민주의적 남성학의 관점에서 조이스를 연구한 논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면서 조이스와 관련된 논문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논문들의 지배적인 경향이 있다면 『더블린 사람들』이나 『율리시스』(*Ulysses*) 각 작품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한편의 이야기라든지 한 장(chapter)의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추어 다룬다는 것이다.²⁾ 본 연

1) 아일랜드는 처녀 혹은 어머니의 이미지로 상징되는데, 전자의 전형은 시인 맹건(James Clarence Mangan)의 시에 나오는 “My Dark Rosaleen”이고 후자의 전형은 아일랜드 민담과 발라드에 나오는 “불쌍한 노파”라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논의는 C. L. Innes의 *Woman and Nation in Irish Literature and Society, 1880-1935* (1993), pp. 15-17을 참조할 것. 또한 아일랜드의 전설과 문학 등에서 여성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은 Lorna Reynolds, “Irish Women in Legend, Literature and Life”(1983)를 참조할 것.

2) 예를 들면, David Lloyd가 쓴 논문 “Counterparts: *Dubliners*, masculinity, and temperance

구는 『더블린 사람들』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블린의 남성들이 어떻게 식민주의에 의해서 여성화되어 가는지(혹은 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과시하려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노력이 항상 좌절로 끝나는 지를 (탈)식민적 남성학의 관점을 통해, 그리고 당시 아일랜드의 역사적 상황 등에 비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일랜드의 민담에서 자주 아일랜드는 집단적 자아상을 여성, 특히 ‘노파’로 상징해 왔다. 그것은 예이츠(W. B. Yeats)의 희곡 『캐슬린 니 홀리한』(*Cathleen ni Houlihan*)에까지 이어져, 노파로 등장하는 캐슬린이 아일랜드의 젊은 남성들에게 자신 즉 아일랜드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영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아일랜드인들의 여성성을 지적하며 아일랜드를 여성화해왔고 그것은 19세기에 더욱 심했다(Lamos & Van Boheemen-Saaf 9). 또한 16세기 초 이래로 영국 작가들은 대부분의 식민담론이 그렇듯이 아일랜드를 “남성적인 탐험가의 침투를 고대하는(혹은 탐험가를 유혹하는) 처녀”로 비유해 왔다(Jones 164).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영국의 여성화가 영국의 제국주의적 사고방식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익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제국과 성의 식민화의 밀접한 연관성과 관련하여, 스피박(Gayatri Spivak)은 “남성주의적-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 구조”(296)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아일랜드는 여성적인 성품을, 영국은 남성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관점에서 남성이 여성을, 즉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통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나온다. 커티스(Curtis)는 이 둘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nationalism"은 「짝패들」(“Counterparts”) 한 편만을 분석하고 있고 다른 논문들도 대동소이하다.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가장 포괄적인 연구서가 있다면, 『유럽의 조이스 연구』(*European Joyce Studies*)가 특집으로 펴낸 『조이스에게 있어서 남성성』(*Masculinities in Joyce* (2001))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더블린 사람들』로부터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에 이르기까지 조이스의 모든 작품들을 학술지 한 권에 묶음으로써 어느 한 작품을 포괄적이고 심도 깊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책의 각 논문이 각각 다른 학자에 의해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더블린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 연구서가 되지 못한다.

여성의 참정권 요구가 압도적인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고, 여성해방론이 남성들에게 깊은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인종과 민족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는 경향은... 아일랜드인들과 같은 민족에게 여성적인 특징을 부여하는 경향은 아일랜드 자치(Home Rule)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해방에 대한 그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스스로 의식하기에 성숙하고 남성적인 앵글로 색슨 족은 자신의 복잡한 제도를 유아적이고 여성적인 아일랜드 켈트족에게 넘겨줄 의도가 없었다. 그것은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넘겨줄 의도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61-62)

여기서 커티스는 여성해방을 두려워하는 남성들과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방을 허용하지 않는 영국을 교묘하게 교차시키고 있다. 영국은 감상적인 여성 혹은 미성숙한 유아가 남성적 덕목을 필요로 하듯이 아일랜드가 앵글로 색슨의 통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너스(Innes)의 표현을 빌어보면, 여성 아일랜드는 영국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하여 자애로운 가부장적 통치를 받아야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를 완성할 수 있고 계속 여성적이고 켈트적인 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15).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식민화는 근대화의 과정과 맞물려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일랜드인 노동자는 영국계 지배계층에 의해 소외되고 그의 남성성은 억압받지 않을 수 없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근대의 회사나 공장은 근무 중 음주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들을 통해 고용인을 통제하였다.³⁾ 「짜패들」의 파링튼(Farrington)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일랜드의 남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사장은 얼스터 사람(Ulsterman) 혹은 북아일랜드 사람으로 영국계라 할 수 있는 알리니씨(Mr Alleyne)이다. 그가 더블린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 하에서 주로 영국 출신들이 살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와 더블린 간의 경제적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나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더블린이 벨파스트의 경제에 의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영국 제국주의의 권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알리니의 위세는 이야기의 서두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3) 참고로 Roy Rosenzweig는 「술집의 기원」(“The Rise of Saloon”)에서 19세기에 주로 미국 등의 공장에서 음주가 금지된 후 생겨난 술집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논의한다.

벨이 사납게 울렸고, 파커양이 인터콥으로 갔을 때 격노한 목소리가 쉼 없는 듯
북아일랜드의 억양으로 외쳤다.

“파링튼을 올려 보내!”

파커양이 타자기 앞으로 돌아가서 앉으며 책상 앞에서 필경을 하고 있는 남자
에게 말했다.

“알레인씨가 위로 올라오래요.”

그 남자는 “빌어먹을”이라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일어서니 그는 키가 크고 등치가 매우 큰 사람이었다. 그는 진한 포
도주색의 늘어진 얼굴을 하고 있었고 금발의 눈썹과 콧수염을 지니고 있었다.
약간 통망울인 그의 눈의 흰자위는 지저분했다. 그는 카운터를 들어올리고 손
님들 걸을 지나 무거운 걸음으로 사무실에서 나왔다. (D 86)

한 쪽은 “격노한” 목소리로 명령하는 지위에 있고 다른 한쪽은 “조그마한” 목
소리로 불평하면서도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들의 상하관계는 위아래에서
각자 일하고 있는 장소만큼이나 분명해 보인다. 알리니의 목소리를 묘사하는
“piercing”이라는 단어는 “찌르르다”라는 의미로 침략적인 제국주의의 확장, 근대
화의 침범, 혹은 남성의 공격성 등을 던지시 알려준다. 그는 이질적인 외부세력으
로서 더블린을 지배하고 있다. 그는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에 금테 안경을 두른
조그마한 사람”으로 효율적인 시간사용을 강조하는 근대화 혹은 자본주의의 화신
처럼 보인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가 파링튼의 안전에서 주먹을
휘두를 때 그는 마치 “전자 기계”(electric machine, D 91)인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파링튼은 “키가 크고 등치가 매우 큰 사람”으로 말끔하지 않은 시골사
람의 인상을 주며 “무거운 걸음”으로 걷는다. “약간 진한 포도주색의 늘어진 얼굴”
이라든지 지저분한 흰자위는 근대화되지 않은, 진보가 뒤쳐진 인종을 암시한다.
진한 얼굴색은 음주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열등한 유색인종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영국인들은 반복적으로 아일랜드인들을 인종적으로 낮은
서열에 자리매김 되었던 흑인과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Cheng 26). 영국인들에 의하면, 패디(Paddy), 즉 정형화된 아일랜드 남자는 “어린
애 같고,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미신적이고, 원시적이거나 반
개화되었고(semi-civilized), 지저분하고, 복수심이 있고, 난폭한” 반면, 앵글로 색슨
족은 “아일랜드인들로 하여금 자치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과 정확하게 정반
대되는 성질”들을 소유하고 있었다(Curtis 53). 물론 이러한 정형화는 제국주의자

의 인종차별적 시선에서 나온 것이지만 파링튼은 이 전형적인 아일랜드 남자의 특징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선, 제 시간 안에 맡겨진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근무 중에도 술집을 찾는 그는 게으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그는 근무 중 실수를 하자 “밖으로 뛰쳐나가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D 90) 욕망을 품을 정도로 난폭한 모습을 보인다. 더욱이 그는 하루 동안 경험한 분노와 좌절로 인해 “복수심”을 품으며 마침내 어린 아들에게 그것을 발산하게 된다. 그가 무지하다는 것은 구경꾼들이 그가 영국인 웨더스(Weathers)와 겨루는 팔씨름을 “민족적 명예”(D 95)를 건 경기로 보는 반면 그는 이러한 역사적 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Potts 70).

그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큰 신체이고 힘이기 때문에 알리니를 “난쟁이”(D 91)로 멸시하고 웨더스를 “애송이”(D 97)로 평가 절하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파링튼이 억압구조 하에서 여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의 남성성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육체적 힘과 신체적인 우람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장대한 신체는 『율리시스』의 「사이클롭스」(“Cyclops”) 장에 나오는 시민(the citizen)을 상기시킨다. 시민은 신화 속의 영웅들의 특징을 합성해 놓은, 순수한 아일랜드 혈통의 남성성을 이상화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은 “넓은 어깨의, 두툼한 가슴의, 강한 팔다리의, 솔직한 시선의, 붉은 머리털의, 주근깨가 많은, 텃수룩한 수염의, 큰 입의, 큰 코의, 긴 두상의, 깊은 목소리의. . . 영웅”(U 12.152-56)이다. 물론 이는 문예부흥 당시 문화민족주의자들이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영웅들을 이상화한 것에 대한 작가의 풍자의 일환으로, 이상적인 아일랜드 남자의 허구성을 노정하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파링튼의 체격은 최소한 기골이 장대한 이상적인 아일랜드의 남성의 기준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듯이 보인다. 다만 그에게는 시민에게 있는 국수주의적인 민족관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시민이 등장하는 무대가 전적으로 바니 커넌 주점(Barney Kiernan's)인데 반해 파링튼의 경우 사무실에서 주점, 그리고 가정으로 이동한다는 점이 다르다. 시민은 게일 운동 경기 협회(Gaelic Athletic Association)를 세운 민족주의 운동가 마이클 쿠색(Michael Cusack)을 모델로 해서 창조된 인물이므로 드러내놓고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반영(反英)의 가치를 든 국수주의적 인물이라면, 파링튼은 식민지인으로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좀더 평범한 더블린의 남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파링튼은 여러 면에서 식민지 아일랜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남성이다. 그런 그가 제국주의적 패권을 대표하는 알리니(Cheng 120)의 사무실 공간에서 회사의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이름 없는 부속품으로 전락하였다. 그는 사무실에 머무르는 내내 개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부여받지 못하고 익명의 “그 남자”(the man)로 남아 있다. 그의 굵은 움직임과 기죽은 목소리 등은 그가 ‘거세’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알리니와 함께 있던, 유대인의 외모를 지닌 중년의 여인, 델라코어 양(Miss Delacour)이 일시적으로 그의 억눌린 남성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알리니씨가 그녀 앞에서 없어진 편지 2개와 관련하여 파링튼에게 심한 욕을 퍼붓자 파링튼은 알리니에게 잠시 대들 듯 대꾸한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을 경우 해고라는 처벌에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처벌은 피지배자를 향한 지배자의 강력한 ‘거세’의 수단,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성화의 방책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억압 구조에서 그가 자신의 남성성을 일시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근력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웨더스와 팔씨름에서 두 번이나 패배함으로써 이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웨더스는 영국식 이름을 지닌 영국인이라는 점에서 파링튼이 그에게 졌다는 것은 아일랜드가 힘의 대결에서 영국을 이길 수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름의 어원이 “거세된 숫양”으로 거세된 남자를 가리킨다는 점(Jackson 82)에서 그가 거세된 남자에게도 당하지 못하는 여성화된 남자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인에 대한 패배는 「경주가 끝난 뒤」(“After the Race”)의 지미(Jimmy Doyle)가 카드 게임에서 영국인 라우쓰(Routh)에게 진 것을 상기시킨다. 한편, 파링튼을 분노하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은 “런던 억양”을 쓰는 영국 여인으로 그는 그녀와 자신 사이에 낭만적인 이성애적 관계를 꿈꾸지만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떠나버린다. 나갈 때 그의 의자에 가볍게 부딪치자 “실례합니다!”(D 95)라는 의례적인 말을 던질 뿐이다. 그것은 「애러비」(“Araby”)의 주인공 소년이 낭만적 생각을 품고 애러비에 갔지만 영국식 억양을 쓰는 여자 상인의 의례적인 말을 들었을 때 느꼈을 절망적인 현실과 비슷할 것이다. 소년이 짝사랑하는 연상의 여인과의 관계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로 파링튼은 자신이 그 여인의 관심을 끌만한 ‘남성’이 아님을 절망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애러비라는 바자가 영국 상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 파링튼이 영국계 사장의 지배 하에 있는 것 모두 아일랜드가 경제적으로 영국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알리니가 북아일랜드 출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국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의 갤러허(Ignatius Gallaher)도 더블린 출신이지만 친영파로서 그가 매고 있는 오렌지색 넥타이는 그가 영국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첩(Cheng)에 의하면, 갤러허는 채들러의 마음 속에서 영국에 대한 환유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118), “억압자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119). 알리니가 파렁튼에게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콘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갤러허는 영국에서 성공하여 꿈을 이룬 자로서 시인의 꿈이 좌절된, 더블린의 실패자 채들러 앞에서 당당하고 의기양양하다. 한 쪽이 제국/남성을 가리킨다면 다른 한 쪽은 식민지/여성을 나타낸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파렁튼과 달리 채들러는 체격이 왜소하고 소심하여 여성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담하게 술을 마시는 갤러허와 대조적으로 채들러는 홀쭉거린다. 한편, 스콜스(Robert Scholes)는 갤러허를 알리니 보다는 웨더스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둘 다 더블린에 도전해서 어떤 의미에서 더블린을 물리치는 외국세력 런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379). 어쨌든 갤러허가 영국의 지배세력 혹은 우월한 문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의 가부장적/제국주의적 면모는 여성을 보는 그의 시각에서 드러난다. 제국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듯이 그는 돈을 위해서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말한다. “내가 말만 꺼내면 당장 내일이라도 현금 싸들고 찾아올 여자가 있어....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수백 명의, 아니 수천 명의 독일 여자들과 유대인 여자들이 있어. 얼마든지 기꺼이 결혼하겠다고 나설...”(D 81). 또한 영토 확장하기를 좋아하는 게걸스러운 제국주의자처럼 그는 결혼함으로써 “한 여자에게만 묶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D 82). 이와 같은 남성적인 갤러허와 달리 채들러는 “섬세하고 금욕적인 사람”(D 80)이다.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해보자면, 유럽의 대도시 나이트 클럽 등을 다니면서 자유를 누리는 갤러허가 그곳의 가치관을 지지한다면, 채들러는 강한 가톨릭 국가로 성에 대해서 억압적인 아일랜드의 가치관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채들러 자신도 본인이 시인이 된다면 켈트적인 “우울한 어조”를 띄는 아일랜드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이름이 좀 더 아일랜드적인 “T. Malone Chandler”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D 74). 이는 「어떤 어머니」(“A Mother”)에서 키어니 부인(Mrs Kearney)이 캐슬린(Cathleen)이라는 아일랜드적인 딸의 이름을 한참 유행을 타고 있는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에

이용하려 한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조이스가 그 운동을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챌들러가 자신의 이러한 아일랜드적인(“켈트파의”) 특성을 “영국 비평가”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D 74). 이것은 그가 영국의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아일랜드의 영국문화에 대한 의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작은” 챌들러가 어린이의 이미지로 묘사되는 것 또한 아일랜드가 영국에 의해서 독립할 수 없는 여성 혹은 미성숙한 유아로 간주된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겉려허 못지않게 제국주의적 요소와 가부장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두 한량」(“Two Gallants”)의 코얼리(Corley)일 것이다. 그는 겉려허처럼 으스스하며 장광설을 늘어놓는 남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걸음걸이가 알려주듯이, 거친 성격의 소유자이다. 또한, 겉려허와 다르지 않게 그는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남자(macho)로서 여성을 착취와 정복의 대상으로 본다. 그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는 창녀가 되었고 지금 만나는 하녀도 그에게 돈을 빼앗긴 후 버림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그도 사복을 입은 경찰과 자주 만난다는 점에서 그가 경찰과 밀착되어 있는 밀고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영국 편에 서 있다. 그는 “아버지의 체격과 걸음걸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그의 거대한 체구, 여유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힘찬 구두 소리에는 정복자다운 데가 있었다”(D 55). 이에 반해 “정복자”의 희생물인 하녀는 그에게 농락당하고도 돈을 가져다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은 여성의 착취는 “잔인한 영국의 아일랜드 정복에 대한 성적 비유”로서(Ehrlich 90),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윌리엄스(Trevor L. Williams)의 표현대로, “제국주의의 권력과 식민지의 의존 관계”(81)를 말해준다. 영국에 의해서 원하지도 않은 식민 관계를 강요당하고도 세금과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아일랜드가 하녀의 입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Williams 81). 그리고 코얼리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와 마찬가지로 이 하녀도 같은 운명을 맞아 창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가 그녀에게 주인의 시가를 훔쳐오게 하는데, 그 당시에 하녀가 절도죄로 잡힌 경우에 즉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창녀로 전락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일랜드가 이 하녀처럼 창녀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킬데어 거리(Kildare Street)는 주로 개신교도들, 혹은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거기에는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킬데어 거리 클럽(Kildare

Street Club)이 있다. 코얼리와 레너헌(Lenehan)은 이곳으로 걸어가 클럽의 정문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연주자가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연주하는 시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 있다.

아직도 에린(Erin)은 어두움 속에서 잠들어 있네.
 아직 창백한 빛이 새벽을 늦추고 있네
 언제 햇빛이 상냥하게 떠올라
 우리 섬을 평화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비추어 줄 것인가?

여기서 여성 “에린”은 아일랜드를 가리키고, 하프는 “옷을 반쯤 걸친 여인의 모습”으로 또 다른 아일랜드의 상징인 ‘불쌍한 노파’를 나타낸다(Gifford 58). “애처롭게” 연주하도록 되어 있는 이 곡(Jackson 46)이 백조로 변해버린 한 소녀의 곤경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두움 속에 잠들어 있는 아일랜드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의 암울한 정치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친 여인으로 의인화된 하프는 “자신의 덮개가 악기의 무릎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에 무신경한 채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주인의 손에 지친 듯이 보인다”(D 54). 여기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하프는 낯선 이방인들과 주인의 어루만지는 손에 지친 창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낯선 사람들”(strangers)은 예이츠(W. B. Yeats)의 희곡에서 “우리 집에는 너무 많은 이방인들(strangers)이 있다”(7)고 한 캐슬린 니 홀리한(Cathleen ni Houlihan)의 발언을 상기시킨다. 이 희곡에서 캐슬린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불쌍한 노파’이고 낯선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식민화한 영국인들이다. 하프의 “주인”(master) 또한 스티븐(Stephen Daedalus)이 『율리시즈』에서 “나는 두 주인(masters)을 섬기는 종이다. 한분은 영국인이고 다른 한분은 이탈리아인”이라고 함으로써(U 1.638), 영국의 정치적 지배와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 지배를 의미했듯이, 정치적 지배자, 영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낯선 사람/주인의 손에 농락당하는 여성은 코얼리가 유혹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하녀에 다름 아니고, 결국 영국에 의해 정복당한 아일랜드를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흥미롭게도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왕인 에드워드 7세(King Edward VII)는 「파넬추모일의 선거사무실」(“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에서 여성 편력이 있는 “약간 난봉꾼”(D 132)으로 묘사된다.

「경주가 끝난 뒤」의 시작부분도 남성적인 제국과 여성적인 식민지의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자동차들이 네이스로(路)의 바퀴자국을 따라 총알처럼 일직선으로 달리며 더블린을 향하여 질주하여 왔다. 인치코어에 있는 언덕 마루에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구경꾼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고, 가난과 마비의 이 도로를 통해 유럽대륙이 자신의 부와 산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었다. 모여 있는 무리들은 때때로 기꺼이 억압받는 자들의 환호를 올리고 있었다. (D 42)

유럽대륙의 “부와 산업”을 상징하는 쾌속의 자동차가 달려온다는 데에서 유럽대륙이 동적이고 남성적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반면, “가난과 마비”를 나타내는 도로에서 웅기종기 모여 있는 아일랜드인 관중들은 정적이고 여성적임을 알 수 있다. “총알처럼” 더블린을 향하여 돌진해 오는 자동차의 모습은 마치 ‘에블린’ (“Eveline”)의 “속수무책인 동물”(helpless animal [D 41])인 여주인공만큼이나 수동적인 더블린 사람들을 향해 침략해오는 정복자의 모습이다. 반면에 더블린 사람들은 “기꺼이 억압받는 자들”(the gratefully oppressed)의 입장에서 서 있을 정도로 외부의 지배에 익숙해져 있다.

괴식민지인으로서 여성화된 아일랜드 남자들 중 한 명인 지미는 유럽대륙인들, 특히 남성적인 스포츠맨들과 한패가 됨으로써 자신도 남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세지윅(Eve Kosofsky Sedgwick)의 주장대로, 남성의 자격은 “강력한 남성적 유대”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185). 지미는 더블린 사람들을 특징짓는 마비와 대조되는 쾌속도(快速度)를 누림으로써 자신이 동족들과는 다른 제국주의자/남성의 범주에 속해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득의만면의 흥분 속에 빠져있다. 한때 “진보적인 민족주의자”이었지만(D 43) 경찰에 고기를 납품함으로써 영국의 협력자가 된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영국의 학교에 유학 보낸 것도 아들이 유럽대륙인들 틈에 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리스(Margot Norris)가 지적하듯이, 남성적인 어울림으로 여겨졌던 것은 지미의 여성화를 잠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속임수에 불과했다(28). 그들은 지미로부터 돈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남성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남성사회의 회원자격마저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8). 노리스는 더 나아가 지미를 “강간의 희생자”(26)로 비유하기까지 한다. 팔리의 요트는 지미의 도망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외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고 그는 마취상태가 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다. 그는 “끔찍한 게임”(terrible game)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이제 그만 두었으면”하고 바라

지만(D 48) 이미 때는 늦었고, 지미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게임 판에서 많은 돈을 잃을 때까지 남아있어야 했다. 그는 그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남성들의 영역에 편입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배제되고 주변화되어 공격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여성적 존재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부유한 지미가 미국인, 유럽대륙인들과 함께 개인 소유의 요트에서 호화롭게 술을 마신다면, 「짜페들」의 파링튼은, 말콤(Malcolm)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듯이, 임금 노동자들의 유일한 안식처라 할 수 있는 술집(public house)을 찾는다(94). 알리니가 얼스터(Ulster) 출신의 고용주라는 점은 음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을 상기시킨다. 19세기에 아일랜드에서 활발했던 민족주의 운동과 금주운동(temperance movement)은 상호간의 화해를 위한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적지 않은 차이점들을 노정하는 두 흐름이었다. 금주운동은 애초에 중산층의 개신교도 친영파의 배타적 영역으로 시작되었고 또 오랫동안 그러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Malcolm 112).⁴⁾ 당연히 이 운동은 친영파들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얼스터주에서 가장 활발했다. 이들 친영파 금주운동가들은 사회적으로 하층민인 아일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의 지나친 음주 관습을 멸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월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알리니는 이 얼스터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근대화/식민화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인간을 소외시키는 노동의 리듬이나 위계질서의 규범”이 지배하는 곳인 반면, 술집은 이러한 규범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대안의 공간이었다(Lloyd 143). 혹은 술집은 “지배적인 가치관의 외부에 존재하는” 곳이었다(Lin 47). 그렇다면 파링튼이 일터로부터 나와 “본질적으로 남성의 피난처”인 술집(Rosenzweig 147)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여성화시키는 식민주의와 근대화의 담론에 대한 불순종”(Lin 48)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금주운동은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매튜(Matthew) 신부 등 가톨릭 신부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은 금주운동가들과는 반대편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금주운동가들은 민족주의자들과 달리 친영적인 정부에 충성적이었고 아일랜드의 우월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려 하는 민족주의자들과 달리 아일랜드의 심각한 음주 문제를 민족적인 문제로 단정하고 이를 가차 없이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코넬(O'Connell)이나 데이비스(Thomas Davis)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금주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민족주의 지도자인 파넬(Parnell)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 더 자세한 것은 Elizabeth Malcolm의 “Temperance and Irish Nationalism”을 참고할 것.

파링튼은 인간을 상품화, 기계화하는 자본주의, 근대화의 세력으로 인해 일터에 있는 동안 익명으로 남아 있지만 술집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부여받는다. 술집은 “노동자들이 직면한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저항”이 되는 셈이다(Rosenzweig 148). 혹은 “반근대성의 중대한 장소”(Lloyd 139)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곳은 남성성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곳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환대와 남성성의 표현”(147)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의해 여성화되고 있는 파링튼이 술집에 와서 남성성을 회복하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마샬(Marshall)에 의하면, 술을 내는 것(standing)은 “남성성의 소생 의식”인데(Rosenzweig 147 재인용), 파링튼은 이 날 다른 남성들에게 술을 뱀으로써 남성성을 회복하는 의식을 치른 셈이다. 아일랜드에서 술을 함께 마신다는 것은 “결속력과 평등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Rosenzweig 143), 술집에서는 위계질서의 벽이 무너지고 모두가 평등해진다. 따라서 술집은 식민주의적 계층제가 사라지고 여성화된 아일랜드인이 남성성을 회복하게 되는 공간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공간에서조차도 영국인 웨디스와의 팔씨름에서 치욕적으로 패했다는 것은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 영국의 세력에 의해 점점 잠식당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피식민지인의 여성화 과정이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어 남성성의 회복의 여지가 더욱 어려워짐을 시사하기도 한다. 「경주가 끝난 뒤」의 지미도 자신이 술을 마시는 장소가 남성들 간의 결속력과 평등성을 강화시켜주는 곳으로 생각했지만 영국인 등의 식민주의적 지배를 재확인하는 곳에 불과함을 희미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제국의 통제 하에서 여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아일랜드의 남성들은 남성성의 일시적인 회복을 위해 술집을 자주 찾는다. 술집은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남성들을 중간에서 가로챌으로써 가정과 경쟁상대가 된다. 「애러비」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삼촌이 만취해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바자에 갈 계획을 세웠었던 소년의 애를 태우지만 삼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은총」(“Grace”)의 커넨씨(Mr Kernan)는 아내가 “그의 빈번한 폭음을 기후의 일부분이나 되는 양 받아들일”(D 156) 정도로 과음을 일삼는 남편이다. 그는 여느 더블린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교육이나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난폭한 술꾼인 「에블린」의 아버지는 한술 더 뜨는 편이다. 그의 아내는 광기로 생을 마감했고 딸은 폭력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다.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의 무니씨(Mr Mooney)도 술과 폭력으로 인해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에블린의 어머니와 달리 무니 부인은 결단력 있게 남편과 갈라서고 나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여가장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니 부인의 사위가 될 도런(Bob Doran)은 『율리시스』에서 보면 장인의 뒤를 이어 더블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술꾼이 된다. 그가 폴리(Polly)와 결혼해서 꾸리게 될 가정은 술집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리게 될 것이다.

공적인 장소에서 남성적 권위가 박탈당한 더블린의 남성들에게 술집이 일시적이거나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면 가정은 그들이 제국주의/근대화에 의해서 받은 억압을 양갓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 「에블린」과 「대응」, 그리고 「작은 구름」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식민주의가 가부장적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블린의 아버지, 파링튼, 그리고 리틀 캔들리는 밖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박탈당한 가부장적 헤게모니를 집안에서 찾으려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폭력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특히 파링튼의 경우에 회사에서 알리니로부터 당한 지배와 억압을 가정에서 재현함으로써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하고 있다(Williams 74). 기본스(Luke Gibbons)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스티븐이 아일랜드인으로서 “가정”(home), “에일 맥주”(ale), “주인”(master)을 발음할 때 영국인이 그 단어들을 발음할 때와 다르게 들린다고 한 것을 주목한다. 기본스는 뒤의 두 단어들이 각각 가리키는 술과 영국의 식민지배가 아일랜드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예리하게 지적한다(166). 식민주의에 의한 남성의 여성화와 그에 따른 남성성의 회복에 대한 욕구가 술집과 가정을 경쟁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언뜻 「죽은 사람들」(“The Dead”)의 게이브리엘(Gabriel)은 이들 더블린 남자와 매우 다른 인물처럼 보일 수 있다. 그의 높은 학력과 비교적 여유로운 경제적 형편, 그리고 안정된 직장과 가정 등은 우선 그를 대부분의 더블린 남자와와는 다른 범주로 분류하게 할 수 있다. 굳이 찾아본다면 「경주가 끝난 뒤」의 지미 정도가 그와 대등한 ‘부르조아’ 계층에 속할 수 있겠지만(Williams 91), 지미는 아직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정도 꾸리지 않았으며 미성숙한 편이고 자기 성찰이 없다는 점에서 게이브리엘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미가 유럽 강국 출신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이브리엘도 제국주의적 야망이 강한 유럽의 나라들, 예컨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로 휴가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게이브리엘은 제국주의자들의 집단에 끼이고 싶어 하는 지미와 달리 이미 제국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가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덧신(goloshes) 신기를 아내에게 강요하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이미 ‘문명’의 가치관을 내재화하여 그것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오히려 런던과 파리 등 넓은 세상을 보아왔고 그 곳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작은 구름」의 꺾려허와 유사성을 보인다.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꺾려허는 거칠고 외향적인 반면 게이브리엘은 자의식이 강하고 섬세한 측면이 있어서 서로 매우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친영파이고 유럽중심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꺾려허의 경우, 그의 노골적인 벵타이 색이 보여주듯이 좀더 공개적인 공모자라면 게이브리엘의 경우 “제국주의와의 무의식적인 공모[자]”(Cheng 138)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열렬한 민족주의자이자 게이브리엘의 동료인 아이버스 양(Miss Ivors)은 보수 진영의 신문인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에 서평을 쓴 게이브리엘을 노골적으로 “친영파”(West Briton)라고 낙인찍고 비난한다. 이런 게이브리엘을 두고 첩은 “제국주의자 주인들과의 협력자”(collaborator with the imperial masters, 138)라 부른다.

게이브리엘의 여성관은 “돈과 결혼하겠다”(D 81)고 한 「작은 구름」의 꺾려허나 하녀를 농락해서 재물을 착취하는 「두 한량」의 코얼리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내 그레타가 그녀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남편 게이브리엘의 의 압제 하에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선의를 가정 폭군”(Cheng 136)이라 지칭될 수 있을 정도로 억압적인 남편이기 때문이다. 아이버스 양이 게이브리엘에게 그레타의 고향이 있는 아일랜드의 서부로의 휴가를 추천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그레타가 남편에게 그곳으로 “제발 가자”(D 191)고 간청했을 때 그는 그것을 단번에 묵살함으로써 그의 가부장적인 지배력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마치 영국이 남성으로서 어리고 약한 여성 아일랜드를 돌보아주고 신심 쓰는 체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녀 릴리(Lily)와 아내 그레타를 대한다. 하지만 그가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말을 꺼내자 릴리는 “요즘 남자들이란 말만 번드러지게 해서 여자들을 농락하기만 한다”(D 178)는 신랄한 대꾸로 남성으로서의 게이브리엘을 당황하게 한다. 여기서 하녀인 릴리는 코얼리처럼 자신을 착취하려고만 했던 “잔인하고 무자비한 남자들”(Ehrlich 95)을 떠올리

고 모든 남자들을 일반화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palaver”란 단어가 행동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남자를 가리킨다고 보았을 때 언어를 분석하는 문학비평가인 게이브리엘도 이 ‘말’을 번드러지게 하는 남자들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레타를 위해서 죽은 그녀의 첫 사랑 마이클 퓨리(Michael Furey)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남자로서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릴리의 공격은 의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게이브리엘에게 향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가 호텔에서 아내를 욕정과 농락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그와 코얼리의 유사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하지만 코얼리의 경우와 달리, 게이브리엘은 하녀인 릴리로부터 도전을 받고 불안해하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자신의 남성성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죽은 사람들」이 『더블린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제국주의와 연결된 남성성이 요지부동의 본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게이브리엘과 그레타의 관계는 남,녀 그리고 남편, 아내라는 것 외에 여러 면에서 상호대조적인 것이다. 특히 그레타는 마이클과 함께 영국의 식민화 정책의 입김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고 아직도 아일랜드 고유의, 덜 문명화된 영역인 서부, 그리고 문화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지닌 거의 신화적인 영역으로 간주된, 골웨이(Galway) 태생이라는 점 때문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게이브리엘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억압했고, 부인했으며 팔아 넘긴(배신한) 것”, 즉 그의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Cheng 138). 또한 게이브리엘이 어린이/여성으로 다루고 있는 그레타는 영국이 여성화하고 억압하는 아일랜드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레타가 마이클이 불렀던 노래 “오그림의 처녀”(Lass of Aughrim)를 들으며 죽은 애인을 생각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노래는 귀족인 그레고리 경(Lord Gregory)의 강압에 의해 아이를 임신하게 된 시골 처녀가 빗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그 귀족의 성안에 들여보내주기를 간청하나 거절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톰슨(Spurgeon Thompson)에 의하면, 여기서 그녀가 당한 무관심은 아일랜드의 대기근(Great Famine)때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받았던 대접을 상기시킨다. 아일랜드는 노래가사 내용과 유사하게 “강간당하고, 배신당했으며,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189). 쉐은 그레타의 고향인 골웨이가 오그림으로부터 3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마이클도 빗속에 서 있었으며, 오그림의 전쟁이 사실상 영국의 아일랜드 지

배를 확정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레타를 “현대의 오그림 처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후 그녀가 식민지배자의 희생자, 나아가서는 아일랜드를 가리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143-44). 마이클이 그레타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예이츠의 희곡 『캐슬린 니 홀리한』에서 아일랜드의 상징인 캐슬린이 아일랜드의 젊은이들에게 조국을 위해서 죽으라고 요청한 말을 상기시키면서, 아일랜드와 그레타의 동일시를 더욱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호텔방에서 게이브리엘은 그레타가 그의 욕정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의 이상한 분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복자(master)가 되어 그녀의 몸을 내 몸에 힘 있게 껴안아(꺾아몽개/진압하여) 그녀를 압도하리라”(overmaster, *D* 217)는 생각을 한다. 그녀의 감정과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힘으로 지배하려 하는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성적인 제국주의”로 영국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진압하려 했던 것을 상기시킨다(Potts 93). 이 날 세 여성 즉, 릴리, 아이버스, 그리고 그레타는 게이브리엘의 남성성/아일랜드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동안 그가 쌓아 온 외견상 안정적인 그의 가부장적/제국주의적 성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기꺼이 억압받는 자들”이 낼 수 없었던 목소리이며 반란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에서 성과 인종(혹은 민족)간의 상호관련성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피정복자를 여성화하는 것은 정복자의 남성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방법”(Jones 168)이고, 나아가서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 남성들은 제국주의자에 의해서 주변화된다. 이러한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썩패들』의 파링튼이 알리니의 회사 내에서 익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화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식민지 남성들에 의해서 모방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밖에서는 주변화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가정에서는 억압과 폭력의 행위자가 되기도 한다. 밖에서 여성성을 보이던 사람이 집안에서 강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성이란 식민화된 남성에게 강요된 가면극”(Jones 168)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정복자의 가치관을 내재화함으로써 자신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국의 수도에서 일을 하거나, 경찰 권력에 빌붙거나, 혹은 친영적인 언론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물론 제국주의와 가부장제 하에서 권력과 남성성의 관계는 말할 나위 없이 밀착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더블린 남성들은 피정복자로서 여성화의 운명을 피해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들」은 주인공인 게이브리엘의 시선을 통해 이러한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 한 명의 인물을 제시한다. 마이클은 토속적인 아일랜드를 나타내는 서부의 출신이기 때문에 친영파이자 세계주의자인 게이브리엘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 제국에 의한 여성화의 억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남성이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남성적인 용기와 정열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전형적인 패턴에 저항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그레타/아일랜드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은 아일랜드 남성을 여성화시키려는 제국의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이클의 행동은 그의 반대편에 서서 남성성과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게이브리엘에게 강한 도전이 된다. 게이브리엘은 “만질 수 없는 잿빛의 영역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정체성을 감지하면서(*D* 223), 자신의 남성성이 가면 속의 그것처럼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깨닫는다. 그것은 단지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남대)

인용문헌

- Arnold, Matthew. *On the Study of Celtic Literature and Other Essays*. New York: Dutton, 1910. Rpt. 1976.
- Brod, Harry & Michael Kaufman, eds. *Theorizing Masculinities*. London: Sage, 1994.
- Canaan, Joyce E. "One thing leads to another": drinking, fighting and working-class masculinities." Ed. Mairtin Mac an Ghaill. *Understanding Masculinitie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6. 114-25.
- Curtis, L. P., Jr. *Anglo-Saxons and Celts: A Study of Anti-Irish Prejudice in Victorian England*. Bridgeport, CT: University of Bridgeport Press, 1968.
- Ehrlich, Heyward. "Socialism, Gender, and Imaginary in *Dubliners*." *Gender in Joyce*. Eds. Jolanta W. Wawrzycka and Marlena G. Corcoran.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7.
- Flannigan-Saint-Aubin, Arthur. "The Male Body and Literary Metaphors for Masculinity." *Theorizing Masculinities*. 239-58.
- Gibbons, Luke. "Have you no homes to go to?":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paralysis." *Semicolonial Joyce*. 150-71.
- Giffi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Innes, C. L. *Woman and Nation in Irish Literature and Society, 1880-1935*.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93.
- Jackson, John Wyse & Bernard McGinley, eds. *James Joyce's Dubliners: An Annotated Edition*. London: Sinclair-Stevenson, 1993.
- Jones, Ann Rosalind and Peter Stallybrass. "Dismantling Irena: The Sexualizing of Ireland in Early Modern England." Eds. Andrew Parker, Mary Russo, Doris Sommer, and Patricia Yaeger. *Nationalisms & Sexualities*. New York: Routledge, 1992.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s.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Viking Press, 1969.

- _____. *Ulysses*. Eds. Hans Walter Gabler,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New York: Vantage-Random House, 1984.
- Kimmel, Michael S. "Masculinity as Homophobia: Fear, Shame, and Silence in the Construction of Gender Identity." *Theorizing Masculinities*. 119-41.
- Lamos, Colleen & Christine Van Boheemen-Saaf. "Joycean Masculinities: An Introduction." *Masculinities in Joyce*. 7-12.
- Lin, Paul. "Standing the Empire: Drinking, Masculinity, and Modernity in 'Counterparts.'" *Masculinities in Joyce*. 33-58.
- Lloyd, David. "'Dubliners,' masculinity, and temperance nationalism." *Semicolonial Joyce*. 128-49.
- Malcolm, Elizabeth. "Temperance and Irish Nationalism." *Ireland under the Union: Varieties of Tension: Essays in Honour of T. W. Moody*. Eds. P. S. L. Lyons & R. A. J. Hawkins. Oxford: Clarendon Press, 1980.
- Norris, Margot. "Masculinity Games in 'After the Race.' *Masculinities in Joyce: Postcolonial Construction*, 2001. 13-31.
- Potts, Willard. *Joyce and the Two Ireland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0.
- Renan, Ernest. *The Poetry of the Celtic Races*. Trans. W. G. Hutchison. London: Walter Scott, 1897.
- Reynolds, Lorna. "Irish Women in Legend, Literature and Life." *Woman in Irish Legend, Life and Literature (Irish Literary Studies 14)*. Ed. S. F. Gallagher. Totowa: Barnes and Noble Books, 1983. 11-25.
- Rosenzweig, Roy. "The Rise of the Saloon." *Rethinking Popular Culture: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Cultural Studies*. Eds. Chandra Mukerji & Michael Schuds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121-56.
- Scholes, Robert. "Counterparts." In Scholes and Litz, ed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379-87.
- Sedgwick, Eve Kosofsky. *Epistemology of the Close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Spivak, Gayatri Chakravorty.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Nelson, Cary and Lawrence Grossberg.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271-313.
- Thompson, Spurgeon. "Recovering Dubliners for Postcolonial Theory." *A New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oyce's Dubliners*. Ed. Oona Frawley. Dublin: The Lilliput Press, 2004. 186-96.
- van Boheemen-Saaf, Christine & Colleen Lamos, eds. *Masculinities in Joyce*. (*European Joyce Studies* 10). Amsterdam: Rodopi, 2001.
- Williams, Trevor L. *Reading Joyce Politically*.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7.
- Yeats, W. B. "Cathleen Ni Houlihan." *Modern Irish Drama*. Ed. John P. Harrington. New York: Norton, 1991.

Abstract

(Post)colonial Masculinity in *Dubliners*

Taeun Min

This essay examines how Irish men in *Dubliners* are feminized by the British, how they try to assert their masculinity, and how such efforts are frustrated. The English cherished a long-standing tradition of feminizing Ireland. The colonizer justifies their conquest and domination by reasoning that the masculine English should be the patriarch of the feminine Irish. And the Irish males, oppressed and marginalized by the conqueror, suffer the "feminizing" effect of colonialism. Not surprisingly, masculinity is a continual dilemma in Joyce's *Dubliners*. It is interesting, however, to find that some Irish males imitate the ideology of their conqueror and act like him in their own house, becoming a cruel patriarch/master. And this implies that gender is a matter of positionality or masquerade. Also, the public house, a male refuge, is a site for the recuperation of many Irish males' masculinity. They drink in order to escape, however temporarily, their colonial subjectification and modernization.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Irish nationalism and the temperance movement is more complicated than it seems. Of course, a rivalry between the public house and the home, another space for masculine renewal, is inevitable in Dublin. Nevertheless, all Irish males' desire to prove their masculinity are frustrated, except in the case of one man: Michael Furey in "The Dead," who courageously gives his life for his love/Ireland and makes Gabriel Conroy, patriarch and "West Briton," feel the insecurity about his masculinity.

■ Key words : *Dubliners*, masculinity, feminization, colonialism, colony, public house (『더블린 사람들』, 남성성, 여성화, 식민주의, 식민지, 술집)

필자 소개

김철수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영문과 석사, 조선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James Joyce의 소설에 나타난 화해의 추구: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과 *Ulysses*를 중심으로.” 현재 전주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중. charles@jj.ac.kr

윤희환

서울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Radiant Triviality: Epiphany in Joyce.” 저서로는 『간이역에서』(대학사, 2003), *Like a Fish, Like a Lizard* (대학사, 2003)가 있음. 현재 강남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중. justiny@kangnam.ac.kr

김 석

미국 New York University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Joyce and the Post-Love Affair: Literature, Globalization and the Question of the Universal.” 현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출강중. askpeer@yonsei.ac.kr

민태운

미국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Subjectivity, Language, and Society in Joyce's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Ulysses*.” 저서로는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전남대학교 출판부, 2001), 『조이스의 더블린: “더블린 사람들” 읽기』(대학사, 2005) 등이 있음. 현재 전남대학교 영문과에 재직중. taeun@chonnam.ac.kr

김상욱

미국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논문은 “The Parent-Offspring Conflict in Joyce's Fiction.” 현재 경희대학교와 덕성여대에 출강중. kimswook@hotmail.com